

ISO/IEC 42001

# AI Governance Audit Guide

AI 기술이 아니라 운영 책임 구조를 이해하는 첫걸음

국제AI교육원

interaiedu.com



# 많은 기업은 AI 성능보다 AI 운영 기준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.

AI를 얼마나 잘 쓰는가보다,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승인하는가가 먼저입니다. ISO/IEC 42001은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.

먼저 떠올리는 질문

이 AI 도구, 성능이 좋은가?

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

이 AI 결과, 누가 책임지고 승인하는가?

# ISO 42001은 AI 모델이 아니라 조직의 책임 구조를 심사합니다.

알고리즘의 정확도가 아니라, 그 결과를 둘러싼 사람과 절차를 확인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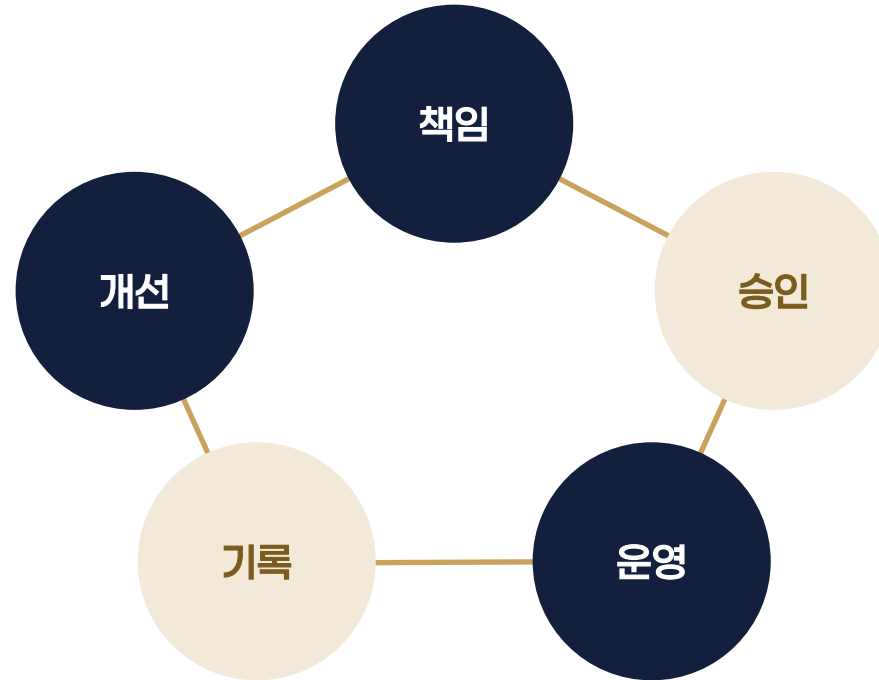
책임 구조

Human Oversight

Evidence

운영 통제

# AI Governance는 하나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.



질문에서 판단까지, 심사는 이 흐름을 따라갑니다.



상황을 보고, 위험을 찾고, 절차를 확인하고, 증거를 찾고, 판단한 뒤 — 마지막에 조항(Clause)과 연결합니다.  
조항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.

## 심사원은 이렇게 질문합니다.

“AI 결과의 최종 승인자는 누구입니까?”

“AI 사용 기준은 문서로 존재합니까?”

“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합니까?”

“AI 운영 기록은 어떻게 남기고 있습니까?”

# Evidence는 문서가 아니라 운영의 흔적입니다.

잘 쓰인 정책 문서 한 장보다, 실제로 승인하고 기록하고 고쳐 온 흔적이 더 강한 증거입니다.

운영 기록

승인 기록

변경 이력

Human Oversight 근거

## 우리 회사라면,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?

- AI 책임자는 누구인가?
- AI 사용 기준은 존재하는가?
- AI 결과는 누가 승인하는가?
- 운영 기록은 남고 있는가?

이제 개념을 이해했다면,  
우리 회사 상황을 GAON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.



스마트폰으로 QR을 스캔하거나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GAON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[GAON으로 AI Governance 확인하기 →](#)